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는 홍순명을 만나 예술이 되었다

호반미술상 1회 수상자 작품세계

33살 프랑스에서 읽은 책에 매료
중심·주변 관계 전복시키는 작업
'사이드스케이프' 연작으로 정점
"진실은 여러 부분 종합해야 보여"

❶홍순명, 뿔 달린 자화상(1994), 나무에 아크릴 물감, 동물 뿔, 153×77㎝(각각) ❷Yeosu. May 29. 2012(2012), 캔버스에 유채, 300×600㎝ ❸흔한 믿음, 익숙한 오해(2020/2021), 캔버스 위에 아크릴 물감. 유채, 259×182㎝ 호반문화재단 제공

현대 물리학을 구성하는 두 기둥은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이다. 그중 양자역학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써서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복잡하게 얽힌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다. 1990년대 초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서른세 살의 한국인 작가는 우연히 '부분과 전체'를 읽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했다.

●회화·설치·미디어아트 등 넘나들어

"국내외를 오가며 세계화와 디아스포라, 중심과 주변에 대해 고민하던 그때 '부분과 전체'를 읽고 감명받아 이를 작업에 끌어왔던 거죠. 그렇게 작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반문화재단이 국내 중견·원로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호반 미술상'의 제1회 수상자 중 한 명인 홍순명(사진·64) 작가는 작업의 시작을 이렇게 떠올렸다. 홍 작가는 회화, 설치, 판화, 미디어아트 등 매체를 넘나들며 독창적이면서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뭔가가 생각나 바로 해야 한다. 원래 설치 작가였는데 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 새로운 것을 찾게 됐다"고 확장의 이유를 에둘러 설명했다.

대표작 '사이드스케이프' 연작은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전복시켜 보편적 미의 기준과 범위, 경계를 흔드는 홍순명 예술 미학의 핵심을 보여 준다. '붉은 남쪽 바다'나 '여수, 5월 29일, 2012년(Yeosu. May 29. 2012)' 같은 작품들은 독립적 이미지를 가진 작은 캔버스들을 조합해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를 만든다. 그는 국내외 사회·정치적 사건 현장을 담은 사진이나 현장의 사물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는 진실의 불확실성과 부분이 말하는 전체, 전체가 보여 주는 부분에 대해 끝없이 질문한다. 그는 사건의 진실은 눈에 띄지 않는 다른 곳에,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홍 작가는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이 50대가 되면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약간의 책임감은 무조건 느껴진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팽목항과 가까운 해안가에서 주워 온 쓰레기들로 설치 작품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새달 14일까지 전쟁기념관서 회고전

빛바랜 흑백 사진 같은 느낌을 주는 '흔한 믿음, 익숙한 오해' 연작은 사회적 변화와 역사적 사건이 가족 간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 준다. 아들과 어머니가 서로 다른 지점을 응시하는 듯한 그림은 단순한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세계관의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뿔 달린 자화상'이나 '내가 너이더냐, 네가 나이더냐' 같은 작품은 홍 작가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왔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홍 작가와 또 다른 수상자인 강운(57) 작가의 회고전은 다음달 14일까지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유용하 기자

광화문 월대 확인… '임금의 길' 되찾는다

남북 48.7m 동서 29.7m 규모
임금이 걷던 어도 너비는 7m
日 전차선로 등 훼손 흔적 여전
문화재청, 10월까지 복원 완료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경복궁 광화문 앞 월대가 원래의 모습과 규모로 돌아온다. 그간 사진 자료로 추정했던 월대의 전모가 실물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복원 공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문화재청은 25일 광화문에서 월대 발굴 조사의 성과와 향후 복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를 진행했는데 월대의 전체 규모, 임금이 지나다니던 어도지 기초시설, 월대 동편의 모습을 통해 경복궁 중건 시 월대의 전체 모습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월대는 궁궐의 중심 건물인 정전 등 주요 건물에 설치한 넓은 대(臺)를 뜻한다. 고종 시절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남긴 '영건일기'에는 1866년 3월 3일 '광화문 앞에 월대를 쌓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발굴 조사를 통해 월대는 남북 48.7m, 동서 29.7m로 육조 거리를 향해 뻗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월대 중앙에서 광화문 중앙문과 이어지는 어도의 너비는 약 7m에 달한다. 동·서 외곽에는 잘 다듬어진 장대석(길이 120~270㎝·너비 30~50㎝·두께 20~40㎝)을 이용해 2단의 기단을 쌓았고, 그 내부에 서로 다른 성질의 흙을 교차로 쌓아 주변보다 높게 대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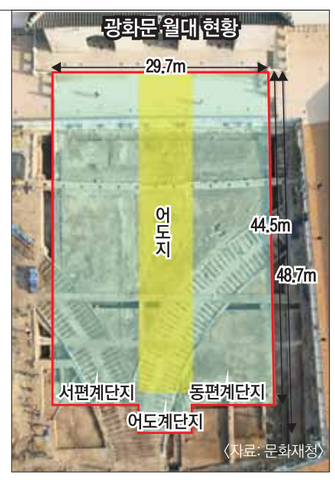
신희권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광화문 월대는 특별히 양옆에 난간을 만들어 훨씬 장식적이고 화려해 다른 궁궐의 월대를 뛰어넘는다"면서 "공연하기 위해 월대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월대는 축조 이후 크게 네 단계의 변화를 거쳤다. 초기에는 남쪽에 3개의 계단이 존재했으나 2단계에서 가운데 어도 계단이 경사로로 바뀌었다. 3단계에서는 경사로 범위가 확장되고 계단이 동·서 외곽으로 축소 변형됐다. 전차선로가 들어선 4단계에서는 월대를 이루던 난간석 등이 철거되고 도로로 바뀌었다.

이날 공개된 월대에는 일제가 놓은 전차선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옆의 어도계단지에서는 소맷돌을 받쳤던 지대석이 확인돼 월대 원형 복원에 중요한 단서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자료를 바탕으로 1890년대 이전의 월대를 복원할 예정이다. 1920년대 해체 이후 경기 구리 동구릉 등에 이전돼 있던 난간석, 하엽석 등의 월대 부재도 재사용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계가 아닌 손으로 돌을 다듬어 질감을 비슷하게 하고, 원형이 잘 보존된 동편을 기준으로 서편도 복원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완공 이후 월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온다. 문화재청은 가을 궁중문화축전과 연계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월대 주변의 삼군부 및 의정부 터 일부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류재민 기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한 광화문 월대의 원형. 문화재청은 선로를 들어내고 어도지와 동·서편 계단을 복원해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제공